

지역경제 활성화 위해 신속집행 총력

저소득층 임대보증금 무이자 지원

전주시, 대상 예산 8922억원 중 60% 상반기 집행 · 최명규 전주부시장 단장으로 신속집행 추진단 가동

전주시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절망에 빠져있는 소상공인을 돕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선결제, 선구매 등 신속집행에 총력을 다하기로 했다. 시는 올해 신속집행 대상 예산 8,922억원 중 60%에 해당하는 5,300여억원을 상반기 중에 집행할 계획이라고 5일 밝혔다.

이 목표는 전년 대비 3%가 상향된 것으로, 최근 5년간 신속집행 목표치 중 가장 높은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위해 시는 오는 6월까지 최명규 전주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신속집행 추진단을 가동해 매월 2회 이상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애로사항이 생기면

원인을 분석해 대책을 강구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2021년 예산 확정과 동시에 사업별 추진계획을 사전에 수립해 선결제, 선구매, 긴급입찰, 선금급 지급, 관급자제 선고지 등 지방재정 신속집행 특례 적용을 의무적으로 확대기로 했다.

최현창 전주시 기획조정국장은 "계속되는 경기침체로 지역경제가 많이 어려운 만큼 공공부문 신속집행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며 "무엇보다 시설사업비 등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사업을 적극 추진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전주시, 계약금 제외한 보증금 잔액 범위 내에서 최대 2000만원까지

전주시가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임대보증금을 무이자로 빌려준다. 시는 올해 도시 2억5,800만원을 포함해 총 6억5,800만원의 예산으로 저소득층 주거 안정을 위한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무이자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전주시에서 거주하는 무주택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가운데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전북개발공사가 공급하는 30년 이상 장기임대주택(영구임대, 50년 임대, 국민임대) 또는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에 신규 입주하는 자이다. 시는 이들 가구에 임대보증금 중 계

약금을 제외한 보증금 잔액 범위 내에서 최대 2,000만원을 무이자로 지원한다. 지원 기간은 2년으로 2회까지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월 임대료 또는 관리비용을 최근 2년 이내에 2월 이상 연속해 연체한 사실이 없어야 연장이 가능하다. 이에 앞서 시는 지난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지원사업을 통해 총 1,351가구에 60억원의 임대보증금을 무이자로 지원했다. 한편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지원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전주시청 주거복지과(063-281-2445) 또는 천년전주 콜센터(063-222-1000)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김윤상 기자

영농부산물 불법 소각 집중 단속

전주시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계절관리제 시행에 맞춰 폐비닐, 부직포 등 영농폐기물과 고춧대, 깻대 등 영농부산물 불법 소각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시는 오는 3월까지 농촌 지역 불법 소각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농경·환경·산림 부서 공무원으로 구성된 합동점검반을 운영한다고 5일 밝혔다. 합동점검반은 농경지(산림 지역 농지 포함) 내 소각 행위를 단속하고 매주 1회에 걸쳐 불법 소각 방지를 위한 홍보와 계도 활동을 펼친다. 시는 점검 결과 지정 장소 외에 생활폐기물을 버리거나 매립, 소각한 시민에게 폐기물 종량제 봉투에 담아 별도 수거장소로 배출해야 한다. 고춧대, 깻대, 과수 전정가지 등 영농부산물 또한 소각이 금지되며, 수거 후 분쇄해 퇴비화해야 한다.

영농 후 발생된 영농폐기물 중 재활용이 가능한 멀칭비닐, 하우스비닐 등 폐비닐과 폐농약 용기는 마을 공동집하장으로 배출해야 한다. 부직포, 반사필름 등 재활용이 불가능한 폐기물은 폐기물 종량제 봉투에 담아 별도 수거장소로 배출해야 한다. 고춧대, 깻대, 과수 전정가지 등 영농부산물 또한 소각이 금지되며, 수거 후 분쇄해 퇴비화해야 한다.

병해충 방제 효과가 있다고 알려진 논·밭두렁 태우기는 해충류 방제 효과가 11% 정도로 미미할 뿐만 아니라 소각행위 시 농사에 도움을 주는 천적류와 토양 유기물 분해자 등 익충류는 89% 이상 감소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윤상 기자



이영희 전북지방병무청장이 5일 신축년을 맞아 국립임실호국원을 찾아 현충탑 참배를 했다.

전북지방병무청, 국립임실호국원 신년 참배

전북지방병무청(청장 이영희)은 5일 신축년을 맞아 국립임실호국원을 찾아 현충탑 참배를 했다. 코로나19 방역지침을 준수하며 진행된 이날 참배에서는 이영희 전북지방

병무청장과 직원들은 새로운 출발을 다짐하고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숭고한 정신을 되새겼다. 이영희 청장은 "신축년을 맞아 올해

도 전 직원이 소통과 화합으로 즐거운 직장을 만들고, 국민이 공감하고 체감할 수 있는 국민중심의 적극행정을 실현해 나가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김윤상 기자



전주시 노인복지병원 보건복지부장관 표창

2019년 공공보건의료계획 시행계획 평가 전국 최우수

전주시에서 위탁 운영 중인 전주시 노인복지병원(법인이사 고재일)은 최근 보건복지부의 '2019년 공공보건의료계획 시행계획 평가'에서 공공보건의료사업 전국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돼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을 받았다고 5일 밝혔다. 이남진 전주시 노인복지병원장은 공공의료발전 유공자로 선정돼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전국 공공병원 222곳 중 노인병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이번 평가에서 전주시 노인복지병원은 ▲공공성 강화 ▲양질의 적정진료 ▲건강안전망사업 ▲미충족서비스사업 등 4개 분야에서 94.7점이라는

최고 점수를 획득해 전국 최우수 공공요양병원으로 인정받게 됐다. 특히 전주시 노인복지병원은 적정진료, 환자안전 및 감염관리, 재가치매노인 방문 간호사업, 집단인재개발프로그램 연구사업 분야에서 모범사례로 선정됐다. 전주시보건소 관계자는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은 그간 임원환자는 물론 지역 내 치매환자와 저소득층 노인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이 이뤄낸 성과"라며 "앞으로도 전주시 공공보건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을 꾸준히 수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전북경찰, 'n번방' 등 디지털 성범죄 102명 검거... 6명 구속

전북경찰이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을 계기로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단을 운영한 결과 총 94건을 단속해 102명을 검거하고 이 중 6명을 구속했다. 전북경찰청은 지난 3월 23일부터 12월 말까지 운영한 디지털 성범죄 특별

수사단 성과를 5일 발표했다. 검거된 피의자 중에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유통한 자가 53명(49건)으로 가장 많았고,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 31명(31건), 불법 성영상물 제작·유통 10명(8건), 불법 촬영물 제작·유통 8명(6건) 등의 순이

었다. 피의자의 상당수인 85명(83%)은 10·20대에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특별수사단 내 피해자 보호팀을 두고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피해자 보호 활동을 지원해 피해자 35명을 대상으로 영상 삭제·차단, 상담소 연계

등 다양한 피해자 보호·지원 조치도 시행했다. 김광수 전북청 사이버수사대장은 "특별수사단 운영 종료 이후에도 사이버수사대에 설치된 사이버 성폭력 전담수사팀을 중심으로 상시 단속체계를 이어나갈 예정"이라며 "그간의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디지털 성범죄 척결과 피해자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뉴스

Jeonju Crime Victim Support Center

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당신이 웃는 내일을 희망합니다”

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범죄피해의 고통을 상담지원, 법률, 의료, 환경개선 지원 등을 통해 범죄가 있기 전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국번없이

1577-1295

전화상담, 사이버상담, 방문상담, 예약상담 등
매주 월요일 ~ 금요일 (연말연시와 공휴일 제외)
상담시간 : 10:00~17:00

전주지방경찰청
(사)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
☎ (063) 276-8804, 8828
전주시 덕진구 시평로 25(덕진동 17) 전주지방경찰청 신관 152호
*홈페이지 : www.jjvs.or.kr *전자우편 : jjvs@hanmail.net